

# 동학농민혁명 스토리(웹소설) 공모전

응모분야	웹소설	접수번호	이 부분은 기재하지 마십시오.
작품제목	녹두장군의 전담 호위가 되었습니다(10)		

10화 : 언제부터였을까

봉준을 중심으로 한 고부의 민중은 혁명의 불길을 더욱 거세게 태웠다. 무장 집회를 끝낸 그들은 고창과 흥덕, 줄포를 지나 다시 재점령한 고부를 탈탈 털어 이곳 백산에 자리를 잡았다. 행군이란 행군은 다 겪어본 현세도 이 날 만큼은 감자니, 고구마니 투정 부릴 체력조차 남아있지 않았더랬다.

그나마 10대라는 젊은 몸뚱이덕분에 이만치 버텨 준 것 같았다. 반면 동학군은 대부분 키도 작달만한데다가 피죽 한 그릇 못 먹게 생긴 몰골로 가파른 길을 잘도 오르내렸다.

그것은 비단 살고자 하는 의지만이 작용한 것은 아닌 듯했다.

“와아아아! 동학군 만세! 녹두 장군 만세!”

의지를 넘어서는 고양감이 끊임없이 동학군을 일으켜 세웠다. 그들은 백성의 원성이 자자했던 방보세(防漕稅 : 독이나 나루를 이용했을 때 거두는 세금)와 진결세(陳結稅 : 묵은 논밭에서 징수하던 세금) 수천 석을 확보한 뒤, 백산 매안리(현 전라북도 부안군 백산면 용계리 산내마을)에 쌓아 두고 헐벗은 농민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어디 그뿐이라, 동학군은 억울하게 갇혀있던 수많은 농민과 백성들을 풀어주어 입지를 더욱 공고히 했으며, 타락한 관리들을 친히 응징하여 갓 뚜껑을 뚫은 마냥 톡톡 쏘는 청량한 사이다를 민중에 선사했다.

이렇듯 봉준을 필두로 한 동학군이 얻어낸 민심은 천금과도 같았다.

‘녹두장군이라, 어디서 많이 들어본 듯도 하고.’

현세는 이들이 세운 호남창의소에서 조총을 전담하게 되었다. 게다가 봉 형의 목숨을 구해준 덕으로 전담 호위직책을 하나 더 획득하게 되었다.

이 사실을 가장 기뻐해준 사람은 단연코 종이 녀석이었다. 연희와 함께 백산까지 따라붙었다는 것을 알았을 때는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었지만, 죽어도 제 형을 따르겠다며 눈물을 흘뿌리는 어린아이를 차마 외면할 수 없었다. 지금 그 녀석에게는 제가 유일한 혈육이자 의지처일 테니까.

현세는 제 마음보가 이렇게 약해빠졌다는 사실에 적잖이 놀랐다. 다시금 생각해봐도

그는 어린아이와 동물, 여성에게 무척이나 관대했다. 다만, 조선시대까지 와서 깨달았을 뿐이었다.

‘동학군 대장의 전담 비서라니..., 어찌 보면 나름대로 승진 한 건가?’

느낌상 봉준의 행보는 사망 플래그를 꽂은 것이 확실해 보였다. 그렇지만 그냥 눈 뜨고 보고 있을 수가 없었다. 현세는 저 작은 거인의 명줄을 어떻게든 길게 늘어뜨려 순박하기 그지없는 농민들이 환하게 웃는 꼴을 보고야 말리라, 맹세했다.

그까짓 유구한 역사! 바꿀 수 있다면 이 한 몸 불살라 바꿔보지 뭐!

열여덟 청춘의 패기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열정을 지니고 있었다. 현세는 그리 치부하기로 마음먹었다.

“개남 아재, 봉 형더러 왜 녹두 장군이라 부르는 겁니까? 어디, 녹두 농사라도 지으십니까?”

개남은 핏발이 빠듯하게 들어찬 눈을 부라리면서도 입매는 제법 웃는 티를 냈다. 지나가는 사람이 보면 적잖이 당황할, 그런 표정이었다.

그는 은근한 목소리로 물음표를 던졌다.

“아가, 너 영준이(전봉준의 본명)가 예전에 뒤흔치고 지냈는지 모르지?”

그걸 제가 어찌 알겠어요. 이놈 대가리에 있던 기억 대부분이 다른 것들로 채워졌는데! 현세는 고개를 가로저으며 어깨를 으쓱였다.

개남은 어찌 되었든 상관없다는 듯 괄괄한 음성으로 거침없이 말했다.

“대가리를 씨게 맞았다더니 참말인가보네. 영준이 아버지는 조병갑이헌티 저항하다가 매질로 한 달 만에 죽었어야. 아가, 너 어매도 그랬다지?”

“네..., 그랬다네요.”

무심히 내뱉는 말 같아도 현세의 눈동자는 잘게 흔들리고 있었다. 부모 복이 없기로는 봉 형도 매한가지인가, 싶었다.

잠시 뜸을 들인 개남은 계속해서 말을 이었다.

“집은 또 어찌나 곤궁한지 약 쪼가리를 팔아서 근근이 먹고 살아야 했어. 그래도 대갈뺨이 좋아서 의원님 소리를 들었지, 그 놈이. 나중에 태인에 옮겨가서는 어린 아가들에게 글을 가르쳐주는 훈장이 되었지 뭐여.”

지난 기억을 반추하는 개남의 음성이 저녁노을을 따라 흐르는 미풍처럼 아득하게 울려 퍼졌다. 그는 봉준의 친 형이라도 되는 듯 그늘진 표정을 짓고 있었다. 놀라움은 현세의 몫이었다.

“봉 형이 훈장이었다고요?!”

“허헛! 그렇다니께?”

이곳 동학군 중에 기구한 사연 없는 이가 얼마나 되겠는가. 그럼에도 봉준이 겪은 고난과 울분이 얼마나 지독했을지, 현세는 어느 정도 짐작이 갔다. 게다가 봉 형의 본명을 쉬이 부르는 것만 봐도 개남이 그를 향해 쏟아내는 애정이 남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한데, 그게 녹두장군이랑 무슨 관계가 있다는 것인지...?

현세의 궁금증을 알아차린 독심술사 개남은 행동으로 답을 알려주었다.

“영준이가 요만큼... 알겠지?”

“아...”

현세는 개남의 손날 위치를 보고야 비로소 ‘녹두’라는 별칭이 붙은 까닭을 이해했다. 단순히 작아서였구나. 나는 또 뭐라고...

괜히 웃음이 나오는 현세였다. 초록빛으로 영글어 반질반질 빛나는 조그만 녹두 콩 한 알이 불현 듯 떠올랐기 때문일까.

곱씹으면 곱씹을수록 그 별명과 어울리는 듯도 했다.

“봉 형은 생긴 거랑 다르게 포용력이 넓으시네요. 콩알이라고 놀리는데도 그저 허허. 훈장은 더 대박!”

“뭐시여?!”

개남은 침까지 튀기면서 목젖이 흰히 보이도록 웃어재꼈다. 현세의 눈동자가 사백안 이 되는 것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저 혼자서 한참을 뽕뽕 터졌다.

현세는 작게 한숨을 내쉬었다. 험악하게 생긴 것으로 치면, 개남 아재도 매한가지면서. 도토리 키 재기 하는 것도 아니고.

현세가 고까운 표정을 짓자, 개남은 웃음기를 가득 머금은 채 큰소리로 말했다.

“말도마라! 훈장 노릇도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여. 글 좀 배워 보겠다고 갔던 아가들 대부분이 냅다 도망쳤다니께? 너, 유일하게 버틴 놈이 누군지 알아?”

유일하게 버틴 놈이라. 현세는 어린놈이 꽤 근성이 있구나, 싶었다. 자신이야 산전수전 공중전까지 다 굴렀다지만, 순박한 시골 꼬맹이 중에 봉 형을 보고 쫓지 않을 녀석이 있다고?

현세는 호전적인 표정으로 되물었다.

“그놈이 누군데요, 아재? 나보다 싸요?”

개남은 제 입가를 거칠게 박박 쓸어내리며 의미심장한 표정을 지었다.

“다음에, 다음에 야그 하자잉. 연희가 주는 약이나 잘 쳐묵어. 빨빨거리고 돌아다니지 말고.”

개남은 말을 끝내자마자 벌써 저만치 멀어져갔다. 휘파람을 불며 내딛는 발걸음이 유독시리 가벼워 보였다.

현세는 개남의 뒤통수에 대고 냅다 질러버렸다.

“아재! 운을 뚫으면 끝까지 말을 해야지! 아재!”

현세의 목소리는 메아리처럼 다시 되돌아왔다. 기분 탓인가. 개남의 기분이 무척이나 좋아보였다. 뭐 그것도 어찌 보면 무리는 아니었다. 지금 동학군의 행보는 막힘이 없었으며, 더 큰 대의를 앞둔 만큼 준비도 착착 진행되던 차였다.

현세는 약간 피곤한 듯 머리띠를 풀어헤치고 마른세수를 했다. 탈취한 조총을 전부 개조하려면 한 시도 편히 눈을 붙일 수 없는 상황이었다.

그리고 동학군 중 뛰어난 사수 몇 명을 추려서 저격수로 삼을 계획이었다. 예로부터 적의 우두머리를 먼저 박살 내줘야 전세가 기우는 법이었다.

‘잘 키운 저격수 하나, 열 돌격대 부럽지 않은 법이지.’

현세가 군 조직으로써의 동학군에 골몰하고 있을 무렵, 처소 앞에서 누군가 인기척을 드러냈다.

“안에 있어요?”

“!?”

젠장! 빌어먹을! 연희씨 목소리가 확실했다. 무척 당황한 현세는 제자리에서 허둥대

며 던져놓은 머리띠를 이마까지 아무렇게나 싸잡아 내렸다.

‘가리자! 일단 가려야 해!’

이 동네는 스프레이나 왁스 따위는 아예 취급하지 않는 상고시대나 다름없었다. 현세는 혹여나 머리칼이 뚝지지는 않았을지 무척이나 염려가 되었다. 현세가 속으로 조카의 크레파스 열여덟 색깔을 세는 동안 연희의 음성이 다시 울렸다.

“저기, 현세...”

“들어와요!”

될 대로 되라지. 현세는 자포자기의 심정으로 목청을 드높였다. 이곳 분위기로 미루어보아, 백산 대회가 끝나면 무장 투쟁으로 나아갈 조짐이었다. 그렇다면 언제다시 연희를 볼 지 기약이 없었다. 운이 나쁘면 저세상에 가서 향냄새를 쫓아다닐지도 모르고. 그럴 바에는 궤죄죄하더라도 연희의 얼굴을 마주보는 게 훨씬 나았다. 게다가 이 고삐리의 얼굴만큼은 제법 봐 줄 만하니까, 현세는 나름의 자신감을 장착했다.

“실례할게요. 드릴게 있어서요.”

처소 문간을 들어서서 연희의 모습에 현세의 동공이 활짝 열렸다. 어느 틈엔가 눈동자를 빼앗기기 시작했노라는 스포츠 애니메이션 노래가사가 귓전을 타고 흐르는 느낌이었다.

단정하게 빗어 넘긴 머리에 뽀얀 수건을 씌운 모습이 꼭 알프스 소녀 하이드리다. 하이드리다는 여성을 만나본 적도 없는 현세였지만, 연희의 새맑은 얼굴이 꼭 그래보였다.

언제부터였을까.

시커멓게 썩은 스물여덟의 영혼을 품은 방년 열여덟의 현세는 첫사랑이라는 생경한 감정의 늪에 빠져있었다.

하지만, 언제부터?

머리를 얻어터지고 깨어난 뒤 제 손을 진맥하던 그녀를 보았을 때? 지그시 감은 눈에 돌아난 속눈썹은 무척이나 길고 풍성했다. 모를 일이었다.

어쩌면 주삿바늘을 죽기보다 싫어하는 제게 히말라야 정상에서 꽃는 국기마냥 침을 놔준 그때부터였을까? 이 또한 모를 일이었다.

그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 화중을 처남으로 여기는 것으로 모자라 연희와 동방화촉

을 밝히는 등 상상의 나래를 펼치곤 했다.

미친놈.

스스로를 미친놈이라 칭하면서도 입가에 걸린 미소는 내려올 줄 몰랐다. 조총을 개조하느라 손가락 뼈마디가 갈라져 터질 것 같은 와중에도 그의 의식은 저기 멀리 연희의 곁에 머물러 있었다.

현세의 시선이 연희의 나폴거리는 머릿수건에 닿았다가 그녀의 새까만 눈동자에 도착했다.

순간, 시선을 마주친 두 사람의 호흡이 멎었다.

“...”

“...”

“저기...”

먼저 입을 뗀 사람은 연희였다. 금세 당혹감을 지운 그녀는 싱긋 웃으며 들고 있던 나무상자를 스윙, 내밀었다.

당황하기는 현세도 마찬가지였는지, 삼시간에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다. 어찌나 핫핫한지 콧바퀴까지 빨개졌다.

“이, 이게 뭐, 뭘니까?”

미친놈아! 말까지 더듬는 걸 보니 정녕 돌아버린 게 아닌가, 싶었다. 무척 머쓱해진 현세는 뒷머리를 긁적이며 연희가 내민 상자를 받아들였다.

그녀의 음성은 봄날의 햇살을 머금은 보드라운 새싹처럼 한들한들거렸다.

“안팎으로 난리 통이니 당분간은 약을 달여 주기 힘들 것 같아서요. 해서, 그 안에 환약을 넣어 두었습니다. 하루에 두 번씩 복용하면 어혈을 푸는데 도움이 될 거예요.”

붉어진 얼굴과는 달리, 현세는 다소 어두워진 표정으로 감사를 전했다.

“아, 고마워요...”

연희가 이러는 것도 무리는 아니었다. 아마 진짜 현세의 기억을 찾아주기 위한 노력의 일종이겠지.

그러나 현세는 기억을 잃은 게 아니었다. 어떤 원리가 작용했는지는 몰라도 열여덟 이전의 삶은 제 것이 아니었다. 어쩐지 마음이 무거워졌다.

그는 상자를 내려놓고 잠시 망설였다.

‘그냥 사실대로 말 할까? 믿어주기는커녕 정신병자라고 여길지도 모르는데.’